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개원 100년 '새로운 100년' 글로벌 비전 선포

18일 숲치유광장서 100년 기념행사 바이오산업 육성 등 발전전략 제시 부대행사 사진전·연구성과 전시

연구소 개원 100년을 맞아 '글로벌 산림과학 융합기술'의 비전을 제시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오는 18일 숲치유광장에서 개원 100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922년 광주 임동에서 임업요령장으로 출발했다. 기념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지역대학과 업무협약, 미래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에서는 기념식수와 과거와 현재 사진전, 연구 성과 전시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대·순천대·목포대·조선대·동신대 등 5개 대학 총장들이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 ▲산림부문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연구 ▲산림과학기

술 과제발굴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를 다짐한다. 이와 함께 토종 산림자원을 활용한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에 공동 노력을 결의하게 된다.

또 어린이와 청년, 기업인 등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해 '숲과 함께하는 전남의 미래, 글로벌 산림과학융합기술 실현' 의지를 담은 새로운 미래비전을 선포한다.

1922년 광주 임동에서 임업요령장으로 출발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934년 광주 쌍촌동으로 이전한 뒤 1937년 임업시험장으로 승격됐으며 1975년 현재 나주 산포면 산재리로 청사를 이전했다. 1993년 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화 이후 훼손된 산림을 빠르게 복구하고 보전하는 지산녹화 정책에 중점을 뒀 업무 영역을 확장한 결과 산림강국의 면모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1998년 완도수목원과 통합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산림이 중요한 자원으로 부

각되면서 2008년 산림자원연구소로 개칭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목에 대한 재배·증식기술 연구 위주에서 산림자원의 산업화 소재로서의 활용을 위한 기능성 연구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산림학교를 운영해 전문임업인을 양성하고 산림자원 신제품개발·재배법연구 및 토종 탐사단을 운영했다. 연구소의 숲을 도민들에게 개방해 연간 20만명 이상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오득실 소장은 "미래는 디지털을 통한 바이오산업이 주를 이루는 대전환의 시대가 예측된다"며 "지난 100년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바이오기업과 연계한 토종 산림자원 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전남 산림연구 100년'을 기념해 직원들이 직접 자료 수집을 통해 '100년사' 발간도 준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제주권 FTA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

지역기업 FTA활용률 제고 협력

전남FTA활용지원센터(이하 전남FTA센터)가 지난 14일 여수에서 전북FTA활용지원센터, 광주FTA활용지원센터, 제주FTA활용지원센터 등과 호남·제주권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및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전라남도청, 전남FTA활용지원센터(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전북FTA활용지원센터(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광주FTA활용지원센터(광주상공회의소), 제주FTA활용지원센터(제주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호남·제주권역 내 수출 및 FTA활용 활성화와 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등 정보 공유,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동 운영 등에 나서게 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활용 촉진팀, 한국무역협회 제도개선실, 전라남도 국제



협력관, 등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팬데믹 영향으로 감소된 한국 수출이 회복세를 띠는 동시에 새로운 FTA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다"며 "호남·제주권 FTA센터 간 협력을 통해 권역 내 수출기업 발전을 위한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자치경찰위, BI확정...맞춤형 치안 담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회 공식 상징물인 BI(Brand Identity)를 제작해 발표했다. <사진> BI는 도민과 함께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는 위원회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

전남의 영문 이니셜인 JN과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를 조합해 전라남도를 지키는 자치경찰을 표현했으며, 색상은 전라남도 CI 컬러(Green, Orange, Blue)를 반영해 전라남도화 일체감을 형성했다. 힘차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참수리는

전라남도 어느곳에서든 맞춤형 치안을 실현하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위원회가 제작한 BI를 치안 정책 홍보 및 각종 공문서 등 대내외적 활동 일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이미지 형성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인지도 역시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형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BI를 잘 활용해 도민과 함께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전남자치경찰의 비전이 널리 알려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 챙기고 환경보호...전남개발공사 플로깅 캠페인

임직원들 참여 남악·오룡지구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11일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남악·오룡지구 일대에서 플로깅(걷거나 달리기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플로깅(Plogging)이란 스웨덴어의 플로카업(Plocka upp : 줍다)과 영어 조깅(Jogging: 걷다)의 합성어로 조깅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사회 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은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악·오룡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ESG 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남악·오룡지구 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더불어 ESG까지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



로 공사는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순사건 희생 204명 명예회복 '온 힘'

진상규명위에 심의·의결 요청키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0·19사건 희생자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심사 대상은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두 차례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다.

주요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상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95건 ▲경찰서 보관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자료가 있는 46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을 제출한 63건 등으로 위원들은 신고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실무위는 심사를 통과한 204건에 대해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

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요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논의해 소위원회 위원장을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에서 목포대 최성환 교수로 변경했다.

한편 11월 8일 현재 총 3823건이 접수된 여수·순천10·19사건의 피해·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97억 들여 고사목 제거·예방주사

전남도가 청정 소나무 숲을 보존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을 내년 3월까지 집중방제하고 숲가꾸기 사업, 시·군 간 공동방제선 구축 등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몸속에 소나무재선충병을 보유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성충이 건강한 소나무로 이동하면서 확산시킨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수분과 양분 이동에 이상이 발생해 말라죽는 병으로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시기가 길어져 소나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고사목 제거 2만1000그루, 예방나무주사 1544ha, 훈증처리목 수집 1만2000개, 모두베기 78ha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재해예방 숲가꾸기사업 1200ha, 조림사업

78ha를 활용해 집중 방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특성에 맞는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연접 시·군 간 공동 방제선 구축, 지역별 책임방제, 단계별 압축 방제 등 맞춤형 방제를 추진해 경미한 시·군부터 정정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여수시 월내동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장을 찾아 방제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고 방제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은 현재 13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